

“청정지역에 오염토양시설 웬말?”

임실군, “광주광역시 오염토양정화시설 허가 즉각 철회” 촉구

임실군이 지역정체권과 힘을 합쳐 광주광역시의 오염토양 정화시설의 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하고 나섰다.

임실군은 24일 심 민 군수와 이용호 국회의원, 신대용 군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 등과 함께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실군에 오염 토양 정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법 변경등록을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 한 토양정화시설은 정화처리 과정중 벤젠 등 특정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12일 광주광역시는 A토양정화업체가 임실군 신덕면에 오염 토양시설 사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록지 변경을 허가했다.

광주광역시는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이 허가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 법률에 근거하여, 타 지역인 임실군에 해당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일방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A토양정화업체는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광역시의 토양 350여 톤을 세 차레에 걸쳐 임실군에 반입,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임실군 소재 토양정화시설, 특정오염물질 주민건강 농작물 피해 막대하다

실제 토양오염시설이 들어선 신덕면은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인근으로, 직선거리로는 2.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임실군과 정읍시, 김제시 등에 일일 평균 4만3000여 톤의 식수를 취수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옥정호 일대는 삼진강 수생태계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환경부가 국가지정 습지(태극 물둘이 습지)를 추진,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광역시는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실군이 제기한 불가의견과 주민들의 항의방문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임실군이 수차례 합동점검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임실주민 모두가 내세우는 지

역브랜드가 청정임실이다. 청정지역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민 군수는 “우리 군민 모두는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광역시는 토양정화법 변경등록 행정처분을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우리 군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청정임실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실군과 군민들은 오염토양 반입 통로인 교량철거 요청 및 주민 청원서제출, 대규모 집회 등 광주광역시 규탄하는 한편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변경등록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국가예산 신규사업 121건 발굴

남원시는 24일 제3차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를 가졌다.

12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조7,614억 원을 발굴했으며, 국비는 1조5,512억 원이고 2020년 신규 국비예산 요구액은 1,070억 원에 이른다.

사업으로는 ▲지리산 산림교육 문화센터 ▲지리산 농산물 복합서비스단지 ▲산나물 클러스터 등이며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기반으로 ▲남원 사회혁신 협력공간 ▲남원 청년몰 조성 ▲옷칠 메이커 일방랩 ▲옷칠 마을공방 육성사업 ▲복공에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등이다.



남원시가 2020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었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사업발굴은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인가 고민하는 기초적인 자세로 시작해야 한다며, 시

동력이 될 새로운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설맞이 특별 체험프로그램 마련

남원시는 설맞이 소원성취 특별기획 프로그램 ‘올해는 돼~지 다~돼지! 소원을 말해봐!’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원성취! 체험프로그램에서는 돼~

지 돼~지 다~돼지! 소원을 말해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MC 개그맨 김범준과 조래훈이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웃음과 재미가 넘치는 재치있는 입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즉석 이벤트를 통해 총 365명에게 복을 나눠주어 1년 내내 복 된 날이 되도록 지원한다. 전통놀이체험 기회도 주어지며, 만들기 체험으로 ‘복을 내 안에 만들면 복 돼지!’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복 돼지를 직접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은 농한기를 활용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농한기는 옛말... 마을만들기 ‘열공 중’

임실군, 찾아가는 마을 정책 설명회

임실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농한기를 활용하여 관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정책설명회, 마을 리더교육, 갈등관리등의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사)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회장 최기술) 주관으로 읍·면 이장회를 활용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와 정책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마을 정책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각종 마을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15일부터 1월말까지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1~2월 중에 중점 추진한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운영의 문제를 산업분야에서 창의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기법을 활용한 ‘리더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는 농촌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서비스 관리교육’과, 21일부터 23일까지는 마을사업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갈등 관리교육’도 실시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지난 해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올해부터는 마을공동체사업 전담부서 신설된 만큼 농촌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더 많은 결실을 맺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특허 미생물 보급으로 관련 기업 매출 상승

순창군이 보유한 특허 미생물이 관련 기업들을 통해 기업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발효식품산업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창성가정식품과 유니버살 팜스밀에게 미생물을 공급해왔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부터 고초균을 콤쿵한 냄새를 줄인 ‘묵은지장국정’ 개발에 성공했다.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하는 제품으로 온라인 소포몰을 운영하는 마켓컬리와 우리생활에 5,000개 제품을 납품해 1,500만원 매출을 올렸으며, 유통회사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팜스밀에서는 갈색거저리 유충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부터 황국균을 활용해 ‘고소에 된장’ 등 4종의 제품을 개발해 1,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남원시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지난 23일 남원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남원농협 외 7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 등록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를 비롯해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 금지행위 등 후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후보자와 조합원의 참여는 정치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방·흑색선전을 자제하고 법규에 따른 선의의 경쟁을 당부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과학영농 토대 마련

순창군이 토양분석과 잔류농약 검사 등 과학영농 분석지원체도를 무료로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017년 11월에 순창군친환경 농업센터를 설립해 토양 시비처방 및 안전관리 17개 항목, 농업용수 분석 35개 항목과 잔류농약 350개 항목 등 총 380여개에 이르는 항목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농업인이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검사에 필요한 10~35만원의 비용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4,400여건에 이르는 무료검사로 총 6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군은 토양검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농가경비비 감소와 고품질 안전농산물 확대 생산 등 고소득 농가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구축할 방침이다.

더욱이 군은 올해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을 위한 농업용수 분석장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인증을 위한 농업용수 분석까지 실시해 농산물 안전성의 책임관 리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의 기반을 만들 여건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